민자 유치 한계…공공성 축소 수익성 확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추진 TF안 뭘 담았나

숙박시설 90% 줄인 1만6천㎡…상가 13만㎡ '5배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추진 전담팀(TF)이 해당 사업을 대폭 손질해 민간개발 방식(민자유치)으로 재추진할 것을 광주시에 건의, 공공성 훼손 등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바람에 광주시 숙원사업의 하나인 특급호텔 건립 등 현안이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추진 전담팀이 1년 여에 걸쳐 마련한 방안을 최근 의결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전담팀이 내놓은 안의 골자는 민간투자자들의 참여 폭을 넓이기 위해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는 것이다. 숙박시설이 14만5000여㎡에서 1만6000여㎡로 10분 1 수준으로 줄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숙박시설은 애초 용역 안에서는 비지니스급 호텔 수준으로 한정했지만 전담팀의 안에서는 이를 폭넓게 인정했다. 대신 상가시설은 2만4000여㎡에서 5배가량 늘린 13만여㎡로 조정했다.

이는 특급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대신 비즈니스급 호텔 정도만 들어서고, 대신 아웃렛 등 대규모 복합쇼핑 공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시설의 경우에도 2만4170㎡에서 10만5576㎡ 늘어난 12만9746㎡로 대폭 증가했다.

전담팀의 이같은 결정에는 "사업자의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유원지 개발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방식이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만큼 사업성을 위한 상가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애초 광주시가 밝힌 기본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어등산 조성사업의 전제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들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용역과 전담팀 보고서가 사업추진에만 맞추다 보니 민자유치에 유리한 상가시설 면적만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골프장을 조성, 운영중인 기존 사업자와의 소송 분쟁 등도 해결해야 과제다. 기존 사업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원(原)사업자의 권리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개발 또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나 도시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개발은 최소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다 손실 발생시 여론악화와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 시작해 2015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인슈타인 '중력파' 100년만에 입증

美 과학재단 논문…한국 연구진 다수 참여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이형목 교수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중력파 검출'에 관한 한국 과학자 기자회견에서 중력파 관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 주장한 중력파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확인했다.

미국 과학재단(NSF)과 고급레이저간섭계중력파관측소(라이고·LIGO) 연구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간과 시간을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믿어지는 중력파의 존재를 직접 측정 방식으로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중력파의 간접 증거가 발견된 적은 있었으나, 직접 검출이 이뤄진 것은 인류 과학역사상 처음이다.

이 중력파는 태양 질량의 36배와 29배인 블랙홀 두 개로 이뤄진 쌍성이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충돌해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파되므로 이 사건은 13억 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이 중력파는 두 블랙홀이 중력파를 내면서 점차 접근해 충돌하기 직전 약 0.15초간 방출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빛 속도의 절반에 가까운 고속으로 충돌한 두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2배인 하나의 블랙홀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태양의 3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질량이 중력파 에너지로 빠져 나가 소멸했다.

라이고 연구진은 레이저를 서로 수직인 두 방향으로 분리시켜 보낸 후 반사된 빛을 다시 합성해 경로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의 뒤틀림을 측정했다. 또 약 3000km 떨어진 미국 루이지애나 주 리빙스턴과 워싱턴 주 핸퍼드에서 두 개의 검출기를 동시에 가동해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고, 미세한 시차를 이용해 파원의 방향을 추정했다.

미국 남부 리빙스턴의 검출기가 태평양 연안 북부 핸퍼드의 검출기보다 0.007초 빨리 신호를 포착했고, 이에 따라 중력파가 남반구 방향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라이고 팀의 연구는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한 사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블랙홀 두 개로 이뤄진 쌍성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블랙홀의 충돌과 합병 과정이라는 극적 현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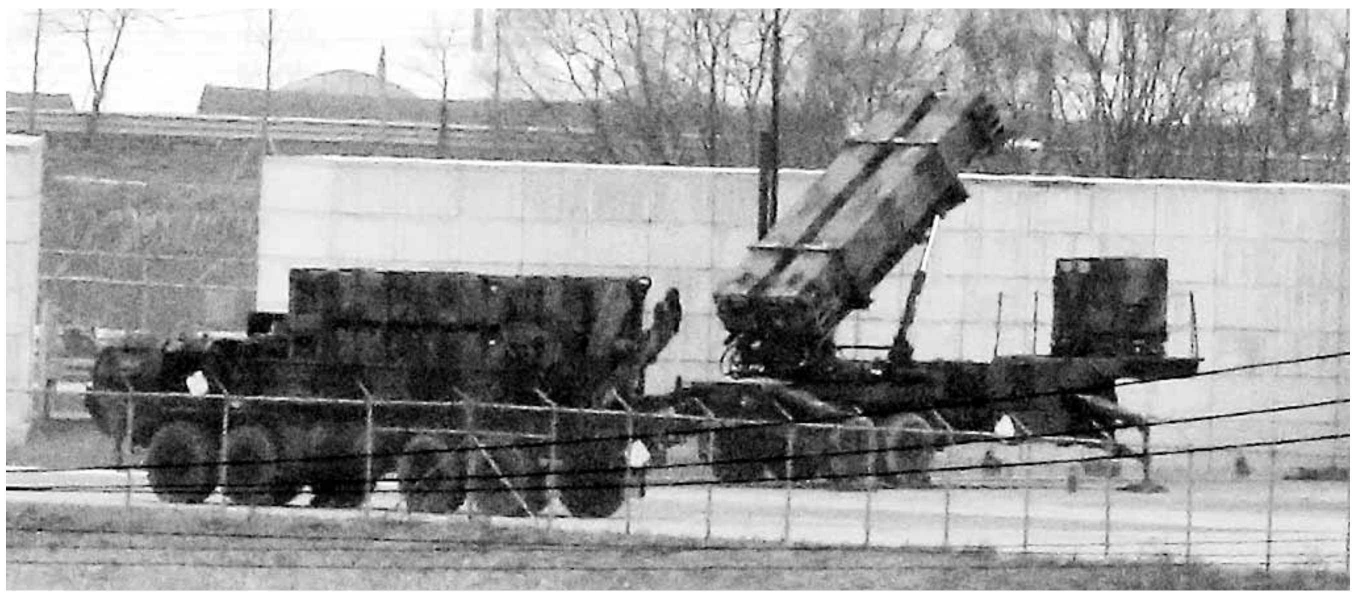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물리학계의 최고 권위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실릴 예정이며 기자회견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공개됐다.

라이고 연구는 1980년대에 라이너 와이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 캘리포니아공과대(캘텍)의 킵 손 명예교수와 로널드 드레버 명예교수에 의해 중력파를 검출하는 수단으로 처음 제안됐다. 이 중 손 교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 자문을 맡은 경력도 있다.

한편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포함한 중력파연구협력단 회원 중 14명은 이번 연구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불꺼진 개성공단…11년만에 단전·단수

홍용표 장관 "자금 70% 당 서기실 상납 핵개발 등 쓰여"…美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패트리엇(PAC-3)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오산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모습. /연합뉴스

개성공단이 단전·단수 상황에 빠지면서 사실상 완전 폐쇄상태가 됐다.

정부가 지난 11일 밤 11시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한전이 지난 2005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11년만에 북측으로의 전력 공급은 완전히 끊어졌다. 정수장 가동도 멈춰 개성공단에 공급되던 용수도 함께 중단됐다.

단전과 단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넘어 폐쇄 수순까지 각오한 극단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용표 "개성공단 달러, 당에 상납"=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며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입에 쏠리는 시선=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 오는 16일 오전 국회 연설을 통해 국민단합을 호소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김 수석은 전했다.

◇美, 패트리엇 1개포대 韓에 순환배치=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순환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한국에 추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방어부대 전개는 영구주둔은 아니며 훈련을 겸한 전개 또는 6개월 단위의 순환 배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 주부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

양국 모두 사드 배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배치한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배치 지역 등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 3차 공모 7명 심사

광주시가 두차례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광주 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선정 심사에 다시 들어갔다.

광주 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 응모자 7명에 대한 서류 심사에 들어갔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장모씨와 2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순천대 교수 박모씨가 응모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수 2명, 복지시설 관계자 2명, 전직 공무원 1명도 응모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면접심사를 해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윤 시장은 이사회가 의결한 후보 가운데 1명을 내정하고 최종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광주복지재단은 군산대 엄기욱 교수가 대표이사로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뒤 두번째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세번째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